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사업

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문화재단



# 1

---

##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사업은 2004년 시민문예지원사업 내 우수예술축제 공모·지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사업명과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에서 다음과 같이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전문예술축제 영역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는 서울에서 진행되는 민간 전문예술축제의 성장과 질적 제고를 위해 직접지원(보조금지원)을 포함한 간접지원(평가, 컨설팅, 워크숍,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진행,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조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음.

<표 1> 예술축제지원사업 흐름

구분	내용
2004년 ~ 2006년	-시민문예지원사업 내 <b>우수예술축제 공모·지원</b>
2007년 ~ 2010년	-서울시 ‘ <b>서울대표예술축제</b> ’ 지정지원사업 재단 이관 -5개 축제 지정지원 : 서울연극제, 서울무용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서울세계무용축제, 서울국제아동청소년연극페스티벌
2011년 ~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문예진흥보조금 횡령 부패 개선방안(2010.9)’의 영향으로 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b>서울대표예술축제 지정지원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전환</b>
2013년 ~ 현재	-서울대표예술축제 및 우수예술축제 육성지원사업을 <b>예술축제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공모 시행</b>

- 위와 같은 흐름 안에서 현재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사업은 지역이관이라는 정책변화 및 다양한 사회, 문화, 기술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받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을 둘러싼 환경변화, 그간 추진되어온 예술축제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등 현 지원체계 진단을 기반으로 향후 예술축제지원사업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 특히 개선방향 마련 연구 과정 안에서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사업을 추진해나갈 주체인 관계자와 사업참여단체 의견수렴 및 참여를 설계하여 보다

실질적·실천적인 체계를 수립하도록 함. 이는 향후 예술축제지원사업 체계 개선 근거가 되는 지침이자,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초연구자료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및 내용

#### ■ 문헌연구 분석을 통한 예술축제지원사업 체계 개선 계획 수립

- 예술축제지원사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 검토
- 2004년~2020년 예술축제지원사업 현황 분석
  - 예술축제지원사업 현황 및 지원체계 검토, 변화 분석
  - 예술축제지원 선정단체 현황 분석
- 분석 시사점 종합 및 연구 계획 수립

#### ■ 예술축제지원사업 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 예술축제지원 선정단체 대상 심층인터뷰(FGI)
  - 예술축제지원 선정단체 27개, 지역대표공연예술제 9개(중복 제외)
- 예술축제지원 행정관계자 심층인터뷰(FGI)
  - 서울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행정 이해관계자
- 전문가 자문
  - 예술지원, 예술축제 관련 전문가
- 의견수렴을 통한 예술축제지원사업 현 단계 진단 및 개선방향 도출

#### ■ 예술축제지원사업 개선방향 도출

- 현황 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으로 수집한 내용을 종합하여 예술축제지원을 둘러싼 환경과 위치를 확인하고 지원사업 개선방향 도출
  - 2021년 연속으로 진행될 예술축제지원사업의 체계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향후 예술축제지원사업 체계 개선방향 및 제언

## 2. 연구 방법 및 추진프로세스

### 2.1. 연구 방법

#### ■ 환경분석

- 예술축제지원 관련 주요 정책 검토
- 예술축제지원사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 검토
- 환경분석 종합 및 연구계획 수립

#### ■ 문헌분석

- 예술축제 관련 선행연구 검토
- 2004년~2020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사업 추진현황 검토
- 2020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사업 추진내용 검토
  - 지원체계 및 내용, 선정단체, 추진조직, 예산, 평가체계 등 검토
- 예술축제지원사업을 둘러싼 현 단계 이슈 및 시사점 진단

<표 2> 환경분석 및 문헌분석 추진개요

구분		내용	
환경 분석	정책환경	-문화비전2030(2018) -새 예술정책(2020)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0)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2016) -제2차 서울특별시 문화진흥시행계획(2020) -2025 서울예술인플랜(2021)	-주요 정책 및 정책환경 변화 검토
	사회문화예술 환경	-2020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2018) -제1회 코로나19 예술포럼 자료집(2020)	-사회환경, 문화예술 환경 변화 및 이슈 검토
문헌 분석	선행연구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체계 개선 연구(2019) -2014 서울축제지원센터 역할모델 정립 연구(2014)	-예술지원, 예술축제 관련 담론 검토 -지원사업 이슈 진단 -지원사업 체계 개선 방향 도출에 참고
	지원사업 추진현황	-2004~2020 지원사업 추진현황 -연도별 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운영안 -연도별 지원사업 심사결과 -연도별 지원사업 현장평가서 -연도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현 지원사업 체계 검토 -지원사업 이슈 진단 -지원사업 체계 개선 방향 도출에 참고










## ■ 의견수렴

- 서면으로 파악하기 힘든 예술축제지원사업의 이슈 및 이해관계자 수요 파악,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의견수렴 FGI(focus group interview) 진행
  - 참석자들 간 자유로운 논의가 전개될 수 있도록 비구조화 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운영, 예술축제지원사업 체계 개선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와 과제 파악

<표 3>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추진개요

구분	세부내용	
FGI 대상	11/4(수) 11/10(화) 11/11(수) 11/17(화)	- 2020 예술축제지원 선정단체 27개(주요 관계자 33인) · 대표예술축제 선정단체 8개 · 우수예술축제 선정단체 19개
	11/11(수)	- 2020 지역대표공연예술제 단체 6개(7인)
	11/17(화)	- 행정관계자 4인
	의견수렴 내용	- 예술축제지원사업을 둘러싼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 이슈 - 현 예술축제지원 체계 개선방향 - 예술축제의 정체성 및 방향성(단체별 예술축제의 목표, 지향점 등)

<표 4>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현장

1차	2차	3차	
			
2020.11.4.(수) 10~12시 대표예술축제 4개단체	2020.11.4.(수) 14~16시 우수예술축제 7개단체	2020.11.10.(화) 14~16시 대표예술축제 4개단체	
4차	5차	6차	7차
			
2020.11.11.(수) 10~12시 우수예술축제 5개 단체	2020.11.11.(수) 14~16시 지역대표공연예술제 7개 단체	2020.11.17.(화) 10~12시 우수예술축제 7개 단체	2020.11.17.(화) 14~16시 행정관계자 4인

- 예술축제지원사업의 체계 개선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전문가(예술축제 평가위원) 의견수렴 진행
  - 예술축제지원사업 추진의 구체적 방향성 도출
  - 연구내용의 전문성 담보 및 실효적인 연구결과 도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전문가(예술축제 평가위원) 의견수렴은 서면인터뷰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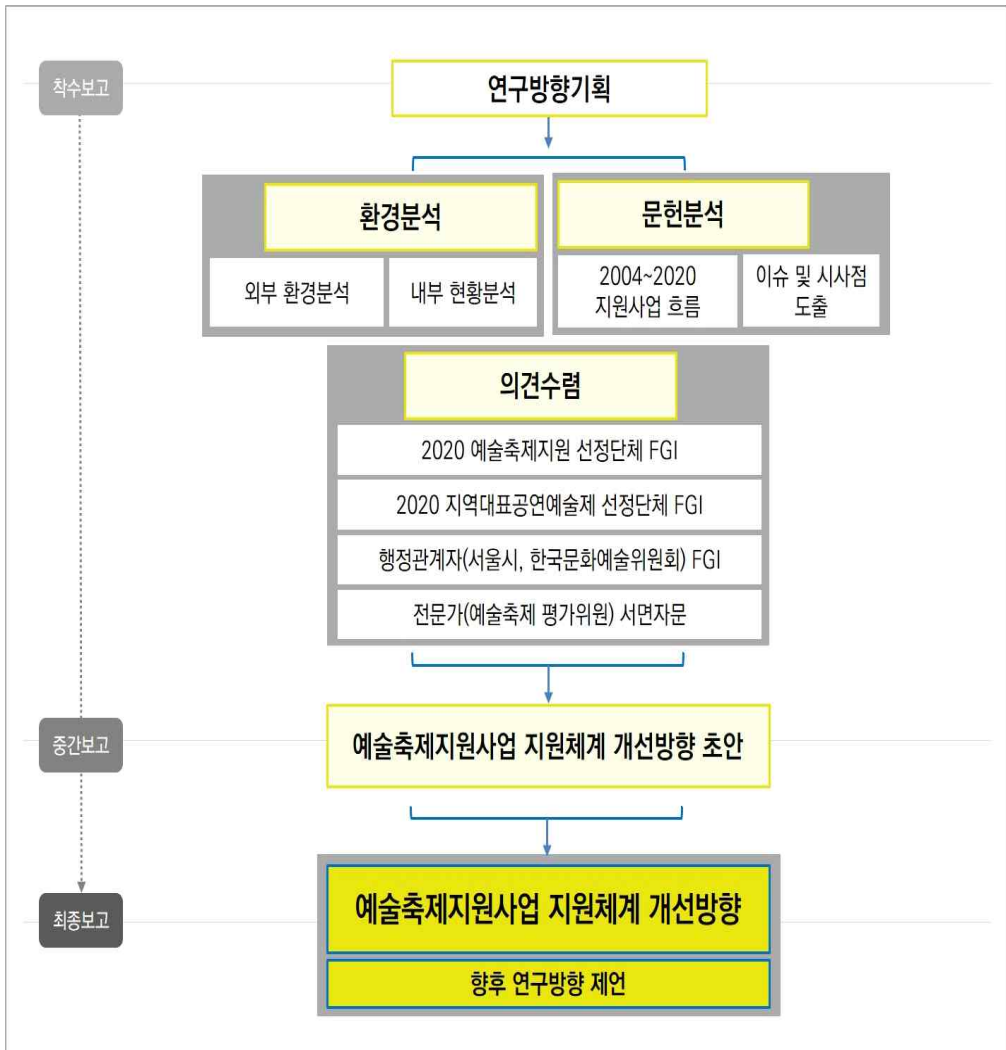
<표 5> 전문가 의견수렴 추진개요

구분	세부내용
대상	전문가(예술축제 평가위원) 6인 -김*희 서울예술단 공연기획팀장 -김*리 무용학자,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 겸임교수 -민*아 음악평론가,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윤*진 한강몽땅 총감독 -이*미 연극평론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최*우 연극평론가, 한국소극장협회 사무국장
의견수렴 내용	-예술축제지원 체계 환경 변화 -예술축제의 정체성(개념 및 범위) 및 방향성 -현 지원체계의 성과 및 이슈, 개선방향

## 2.2. 연구 추진프로세스

- 본 연구는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사업 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로, 다음과 같이 예술축제지원사업 관련 내외부 문헌연구 및 현황자료 분석, 지원사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기획하여 진행함. 특히 예술축제지원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대상 서면자문을 진행하여 연구 내용 및 결과의 질적 전문성을 담보함.

[그림 1] 연구 추진프로세스





# 2

---

## 예술축제지원을 둘러싼 환경변화 및 현황 검토

제1절 예술축제지원을 둘러싼 외부 환경변화 검토

제2절 예술축제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이슈 검토



# 제1절 예술축제지원을 둘러싼 외부 환경변화 검토

## 1. 정책환경

### 1.1. 국가 문화정책

#### ■ 문화권·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를 강조하는 상위 법령들

- 지역의 문화예술진흥 계획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대표적 상위 법령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이 있음. 해당 법령들은 공통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활동 장려를 명시하고 있음.
- 세 가지 상위 법령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차별 없는 문화복지 ▲지역문화와 공동체 강조 ▲생활문화 여건 조성 ▲문화교육 기회의 확대 등이 있음.

<표 6> 상위 법령 주요 내용 및 방향성

법령	내용	주요 가치와 방향
문화예술진흥법 (1972)	- 전통문화예술 계승과 민족문화 창달 목적 - 문화예술공간 설치 - 문화예술복지 증진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방법 명시	문화예술복지 문화예술공간
문화기본법 (2014)	-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법적 천명	문화권
지역문화진흥법 (2014)	- 지역 간 격차 해소,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 발전 강조 - 생활문화진흥을 문화발전의 핵심적 요소로 규정	지역문화, 생활문화 전문인력, 문화도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 지방자치 기조 아래 문화자치 실현

##### : 국가 주도 문화정책 실행에서 지역으로 점진적 이관

- 국가 주도의 문화정책 실행은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를 중심으로 운영해왔음. 그러나 지방자치,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적 민주주의로 정책변화의 기조 속에 중앙 단위의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지역으로 이관하기 시작함.

- 1998년 중앙 단위의 문예진흥기금 사업 약 800여 개를 지역 이관을 시작으로 200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던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의 상당 부분을 ‘지역협력형사업’으로 전환함.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대부분이 각 시도로 이관되었음.
- 2009년 지역 이관의 배경에는 ①공모신청건수 증가<sup>1)</sup>로 인해 예술위 단독으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심의·평가 관리의 어려움과 ②시·도 광역문화재단의 설립으로 지역의 문화행정 역량 증가가 있음. 이에 따라 지역단위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지역으로 이관하고 예술위는 지역단위에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영역을 특성화함.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다시 한번 더 중앙의 ‘지역협력형 사업’은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재편됨. 이 시기부터 광역문화재단들은 각 지역 문화 및 예술생태계에 필요한 사업으로 재편을 시작함. 2017년부터는 중앙의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과 ‘공연장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만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문예진흥기금의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 이후 각 광역문화재단은 지역성을 담은 사업으로 재구성을 요구받고 있음. 이러한 정책변화 환경 속에 각 시·도로 사업 이관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 공공의 가치 확보와 다원화를 요구하는 정부 정책들

- 문화예술과 관련한 법령에 의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으로는 <문화비전 2030>, <새 예술정책>,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가 대표적임. 이들 정부 정책들은 문화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 문화예술 관련 최근 정책 동향은 예술의 공공적 가치를 부각하고 있음.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기조를 이어받으면서 ▲문화를 통한 사회갈등 치유 ▲예술 창작활동 지원 ▲미래지향적 예술생태계 구축 ▲지역 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함.

1) 2005년 신청 건수 2~3,000건에서 2008년에는 6,300여건으로 급증



<표 7> 정부 정책 동향 검토

정책	내용	주요 가치와 방향
문화비전2030 (2018)	-문화가 사회의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의 개념 확장 -문화복지를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치 체계를 제시하고 개인(자율성) → 공동체(다양성) →사회(창의성) 단계의 방향과 9대 정책의제 설정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새 예술정책 (2020)	-예술행정의 혁신과 예술인의 권리 강화 요구에 의해 수립 -지역예술기관 확대 네트워크 구축, 예술인 복지정책의 지역 협력체계 구축, 문화예술공간 다각화 등의 내용 포함 -사람과 삶 중심으로 예술정책 재정립	자율과 독립, 예술가치 존중, 분권과 협치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분권과 자치의 원리로 지역문화생태계의 선순환구조 구축 목표 -지역을 근간으로 '사람이 있는 문화'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자치, 포용, 혁신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시행: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을 위한 안전망 확보

- ‘예술인고용보험’제도가 2020년 5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음. 2014년부터 임의가입 형태로 예술인 고용보험이 추진되어왔는데, 본 제도 시행에 따라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전환되었음.
- 본 제도 시행에 따라 그동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유활동가(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이제 고용보험이 당연히 적용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음.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인들의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표 8>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가입대상	프리랜서 예술인, 문화예술 용역계약 예술인
가입관리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관리 -발주자, 원수급인: 하나의 사업에 원수급인·하수급이 다수인 경우 관리
지원내용	실업급여(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보험료 지원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이후, 예술생태계 안정화를 위한 지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방식을 통해 진행되는 예술창작 활동과 발표 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소수인원 대면 방식만 허용되어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음. 예술 활동이 수개월 동안 기약 없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7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발표함. 지원의 규모는 ‘생계지원’, ‘일자리 지원’, ‘소비 촉진’ 등에 1,569억원 지원하며, 문체부 3차 추경 예산의 45%에 해당함.

<표 9> 문화예술 코로나19 관련 예술지원 내용

지원 내용	지원명	세부내용
생계 지원	예술인 특별용자	71억원, 1,090명 지원
	예술인 창작준비금	226억원, 총 7,535명 지원
	예술강사 강사비 선지급	41억원, 3,260건
일자리 지원	-공연예술계 일자리 지원	319억, 창작·실연, 기획·행정, 무대기술, 공연장 방역 등 현장 인력 일자리 3,500여 개 지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759억, 전국 228개 지자체, 예술인 약 8,500명
비대면·온라인 환경 지원	비대면·온라인 환경 대응 역량 강화	예술인의 온라인·미디어 진입을 돕기 위한 예술활동지원(149억, 2720명) 공연대본·미술도록 등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33억, 310명) 지역문화관 소장유물 디지털화(14억, 90명)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확장에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115억원, 2,000명)
소비 촉진 지원	관람료 지원	공연 관람료(159억), 전시 관람료(52억) 지원을 통한 소비 촉진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촉발된 문화예술환경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 2021년 전체 예산 6조 8,2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70억 원 증액 편성함. 특히 문화예술 부분 예산은 21,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음. 이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의 시기에 안정적인 문화생활을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증액임.

- 이러한 예산 증액은 팬데믹 이후, 새로운 일상을 직면하며 문화환경의 변화를 위한 실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임. 신규사업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온라인 실감형 한국대중음악 공연제작 지원, 디지털 인문뉴딜 등 주로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과 콘텐츠 제작 환경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며,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등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도 확대되었음.

## 1.2. 서울시 문화정책 및 이슈

### ■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문화로 시민의 조화로운 삶 추구

- 서울시는 2006년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 수립 이후, 2016년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이하 비전2030)을 발표함. ‘비전2030’은 시민 개개인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주안점으로 두고 계획을 수립함.
- ‘비전2030’은 비전을 ‘문화시민도시 서울’로 목적을 ‘모두를 위한 모두의 문화’로 설정함. ‘시민의 행복한 삶’, ‘삶을 위한 문화발전’ 방향아래 각 개인의 삶을 둘러싼 5가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가지 차원은 다음과 같음. ①개인: 시민 개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 ②공동체: 각 개인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 ③지역: 각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일상적 공간의 문제 ④도시: 개인과 공동체, 지역을 잇는 통합적 단위로서 도시 ⑤행정: 계획의 실행과 집행을 담당할 행정과 민관 협치의 문제. 이에 따라 ‘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행정’ 5가지 범주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
- 서울시는 ‘비전2030’을 수립하며,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문화예술, 역사문화유산, 문화콘텐츠,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수립한 기존계획을 분야 간 칸막이를 없애 문화 의제를 중심으로 재편함. 또한 본 계획의 중심의 ‘시민’이 있으며 일상이 문화로 연결되고, 포용적 공동체 속 삶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그림 2] 서울시 <비전 2030> 비전 체계도



■ <제2차 서울특별시 문화진흥시행계획(2020~2024)>: <비전2030>을 구체화

- 2020년 7월 수립된 ‘제2차 서울특별시 문화진흥시행계획(2020~2024)’(이하 2차 시행계획)은 서울시 ‘비전 2030’의 방향과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음. ‘2차 시행계획은’ 비전과 목표를 그대로 준용하였으며, 이전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통해 지역문화 차원의 5개 추진과제를 설정함.

<표 10> 제1차 서울특별시 문화진흥시행계획의 성과와 한계

구분	내용
성과	- 시민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되는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 - 예술인 처우개선 및 창작안전망 구축으로 안정적 예술생태계 조성 -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문화시설 확충으로 문화소외지역 격차해소
한계	- 지역문화 관련 사업비 집행의 한계 및 시민 일상 속 문화 참여 부족 - 도서관 이용환경 개선에도 지역별 격차 및 장서수 부족

출처: 서울시. 제2차 서울특별시 문화진흥시행계획(2020)

- 5개 추진과제와 전략은 다음의 표와 같음. 주요 내용으로 ①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②예술 장르별 종합발전계획 수립 ③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제시함.

<표 11> 제2차 서울특별시 문화진흥시행계획 추진과제별 전략

추진 과제	전략
서울형 생활문화 활성화	① 서울형 생활문화 민관 거버넌스 확산 ② 서울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③ 생활문화 축제로 생활문화 예술의 장 마련
문화예술교육 체계 구축	① 생활 속에서 향유하고 체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추진 ②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예술 생태계 자생력 강화 및 장르 지원	① 예술인이 주인이 되는 예술정책 수립·지원 ② 문화예술 장르별 종합발전계획 수립·추진
문화기반시설 전략적 확충	① 다양하고 특색있는 테마형 박물관·미술관 건립 ② 다양한 문화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지원 ③ 대표 및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④ 장애인 도서관정책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① 역사문화자원의 진정성 있는 발굴·보존 ② 역사문화재 활용 관광자원화로 시민 향유기회 확대

출처: 서울시. 제2차 서울특별시 문화진흥시행계획(2020)

### ■ <2025 서울예술인플랜>: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지향

- 서울시는 현재 <2025 서울예술인플랜>을 수립 중임.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두 번째 예술인플랜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변화된 욕구 충족의 필요성에 따른 예술인 권리 신장을 중요시하고 있음.
- 계획 수립의 배경 및 현황으로 ①감염병으로 인한 대면, 접촉 예술의 위기

②온라인 기술 발달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예술 증가 ③미투, 블랙리스트 이후 예술인 권리 요구 증가 ④기초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자치분권 의제 현실화 ⑤예술인·대학생 네트워크, 협동조합 등 예술인 네트워크 다양화 ⑥예술청 조성으로 등장한 새로운 거버넌스와 커뮤니티 환경 조성으로 정리됨. 이에 따른 대응 의제로 ①전환사회 ②위기사회 ③예술인 권리 ④새로운 거버넌스를 도출함.

- 비전은 ‘안전한 창작,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로 설정하고, 미션은 ‘예술인의 안전과 권리 보장’, ‘사회 전환에 대응하는 예술 전환’, ‘예술인 중심 거버넌스 형성’으로 설정함.

<표 12> ‘2025 서울예술인플랜’ 주요 내용

정책	내용
비전	안전한 창작,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미션	①예술인의 안전과 권리 보장 ②사회 전환에 대응하는 예술 전환 ③예술인 중심 거버넌스 형성
추진방향	미션: ①예술인의 안전과 권리 보장 - 안전한 예술환경 조성 - 창작권리 보장 - 안정적 생활 지원
	미션: ②사회 전환에 대응하는 예술 전환 - 새로운 예술 실험/도전 지원 - 전환에 대응하는 예술 생태 형성 -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
	미션: ③예술인 중심 거버넌스 형성 - 예술청 활성화 -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 지역기반 예술분권 구현 - 예술인 주도 계획 이행점검

출처: <2025 서울예술인플랜> 2차 토론회 자료집 재구성

## 2. 사회문화환경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이후 사회 전반에 불확실성 증가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백신과 치료제 개발 시기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영향의 크기가 결정될 것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전반적 사회적 위기가 지속 되고 있는 상황임.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보다 독립적이고, 분열되고, 경쟁적인 사회정치경제 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흐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면서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국가 간 거리두기(international distancing)가 요구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상한 뉴노멀(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 환경은 그 동안 구축해 온 글로벌 밸류체인을 분열시킬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가속하고, 산업의 스마트화를 더욱 빠르게 추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러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던 혁신의 사회경제적 수용을 가속화하여, 혁신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음.
- 이러한 사회경제환경 변화는 문화예술의 존재 기반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음. 코로나 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가장 먼저 문을 닫거나 멈춘 것이 공공 문화시설 및 축제와 같은 시민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의 문화활동이었음. 현재 전국의 예술 및 문화 관련 활동이 비대면화되면서 온라인 기반 보완적 소통방법을 모색하거나 아예 뉴노멀 환경에 새롭게 접근하는 시도들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코로나-블루’로 표현되는 거리두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세계적 우울감의 증폭은 문화예술을 통한 정신의 복원과 치유를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함.

### ■ 저성장 뉴노멀 시대로의 전환의 시기: 대안으로서의 ‘하이퍼 로컬’

-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새로운 기준인 ‘뉴노멀<sup>2)</sup>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에 창의적이

2) 뉴노멀(New Normal)은 과거와 달리 느리게 성장하는 속도, 규제가 만들어지고 강화되는 것, 소비가

고 혁신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며, 능동적이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도시와 라이프스타일의 전환을 위해 기존의 ‘도시주의<sup>3)</sup>’에서 벗어나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과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정책의 기조 중 하나인 ‘지방자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되는 ‘뉴 로컬리즘(new localism)’등 메가트렌드는 ‘지역’을 호명하며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나아가 최근에는 하이퍼 로컬리제이션(Hyper localization)이라고 정의하는 지역만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음.

## ■ 위기의 시기, 예술의 사회적 가치 중요성 확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촉발된 팬데믹 이후, 전세계적인 어려움의 시기에 예술 또한 위기를 직면하게 됨. 세계 여러 나라의 예술현장에서는 이 시기에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화두를 통해 예술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 이러한 논의는 예술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인간과 사회, 환경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의 행위(박신의, 2020)를 지금 다시 함으로써 예술과 삶(일상)에 대한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음.
- 더불어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예술가의 존재가 더욱 중요하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2020.05.) 는 말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예술을 다시 찾는 이유에서 확장되어 예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화두가 대두됨. 1946년, 국가 위기의 시기에 국가 재건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의료보험제도와 영국예술위원회 설립을 추진한 영국의 사례는 현재의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전해줌. 공동체 위기의 시기에 마음과 정신건강을 치유하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현재 중요한 화두임.

---

줄어드는 것, 미국 자본 시장의 영향력 감소 등이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로 ‘일반적인 것’이 ‘새롭게’ 정의됐다는 의미임.

- 3) 도시주의(Urbanism): 도시성 또는 도시주의라고 번역되는 ‘어바니즘’은 현대문명에 있어서의 사회생활의 특질로서 도시의 발달과 세계의 도시화에 주목하여, 지역을 같이하는 취락적 공동생활에 있어서 인구량·인구밀도·인구의 이질성의 증대가, 촌락생활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도시사회 특유의 생활양식을 만들어 낸다고 주장함. 그 특성으로 인격적 연대를 대신하는 개인 간 경쟁의 격화, 전통이나 관습과 대치되는 법률제도 등 공적 통제기구의 발달, 사회적 접촉의 비인격화와 익명성의 증대나 직업의 분화·전문화, 직장과 가정의 분리 등을 들 수 있음.



### 3. 문화예술환경

#### ■ 코로나-19와 문화예술활동의 위기

-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방식의 예술활동은 취소되거나 소수 인원으로 전환되었음. 이로 인해 2020년 공연매출액은 12월 기준 50억 28,516천원으로 전년(347억 42,824천원) 대비 85.5% 수준으로 급감했음.

[그림 3] 공연예술 월별 예매수와 매출액(2019년 12월~2020년 12월)



출처: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공연통계 매출액(2020년 기준)

- 2019년 12월과 비교하여 2020년 12월 기준 장르별 공연 건수 역시 크게 하락하였음. 뮤지컬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 직전월 대비 10% 감소 추이를 보임. 이렇듯 거의 모든 장르의 예술활동이 위기를 겪고 있음.

[그림 4] 장르별 공연 건수(2019년 12월~2020년 12월)



## ■ 비대면 예술 환경에 직면한 예술의 기술적 실험의 필요성과 한계

- 코로나-19 이후, 예술의 기본 전제인 현존과 대면이 불가능해짐. 이에 따라 현 상황을 대체하는 ‘언택트(Un·tact) 또는 온택트(On·tact)’라는 비대면 소통방식 환경을 맞이함. 예술계는 이전의 방법론을 뒤로하고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예술활동 구현을 위해서 기술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함.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 예술가들은 예술 활동의 지속성 문제와 별개로 기술적 실험을 통한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노력으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시도하고 있음.
- 현재 온라인 콘텐츠 유형은 ①이미 제작된 콘텐츠를 송출하는 방식 ②실제 공연 및 전시 상황의 온라인 생중계 ③온라인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 ④버추얼 체험이나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가미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음. 하지만 기존에 미디어 아트 및 융복합 예술 장르를 가 아닌 대다수의 예술가 및 단체들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술환경 대응력이 떨어지는 한계로 인해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 대다수임. 그러므로 현재는 비대면 예술 환경에 적응력을 높이고, 다양한 실험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 기술 발달로 인한 예술의 지평 확대

- 과학기술의 발달은 예술의 표현방식을 풍성하게 하고 있음.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발빠르게 받아들이고 적응한 예술가들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스마트폰, 3D 프린팅, 로봇, 웨어러블 기기 등을 이용한 예술창작 작업을 하고 있음. 이러한 경향들은 인간과 예술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가 되고 있음.
- 기술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간과 예술, 그리고 창의적인 능력을 조화시켜 미래예술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미래예술은 지금까지의 예술교육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창조적 힘과 기술, 비즈니스를 결합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이 요구됨.

## 4. 예술축제지원을 둘러싼 외부 환경변화 검토 시사점

### 4.1. 국가 문화정책 시사점

#### ■ 예술진흥에서 지역문화진흥으로

##### : 문화권·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의 기조로 변화

- 국가 문화정책 중 가장 먼저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은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문화 인프라(문화예술공간, 문화예술진흥기금)를 설치하고, 한국전쟁 이후 복원과 복구의 과제 아래 전통문화예술 계승과 민족문화 창달의 내용을 담고 있음. 42년 후, <문화기본법>의 제정은 ‘문화권’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헌법 제22조에서 확인되는 ‘예술의 자유’에서 나아가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문화를 누릴 권리의 위상을 확인 및 확산하는 계기가 됨. 동시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을 통해 지역문화진흥의 구체적인 발판을 마련함.
- 2018년 수립된 <문화비전 2030>과 2020년 수립된 <새 예술정책>은 분권과 협치의 방향 아래 개인의 자율성에서 공동체의 다양성으로, 나아가 사회의 창의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문화의 개념을 확장함. 또한 지역예술기관 확대 네트워크 구축, 예술인 복지정책의 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 사람과 삶,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술정책을 수립함. 더불어 2020년 수립된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각 문화자치의 구체적 실행력을 높여가고 있음.

#### ■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적 민주주의로

##### : 국가 주도 문화정책 실행에서 지역으로 점진적 이관

- 국가 문화정책이 예술진흥에서 지역문화진흥으로의 기조 변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문화정책 실행 역시 지역 이관의 기조로 변화됨. 그동안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를 중심으로 운영해왔던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시작으로 점진적 지역 이관이 진행되고 있음.
- 1998년 중앙 단위의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이관 이후, 2009년 예술위가 주관하던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의 상당 부분을 ‘지역협력형사업’으로 전환함. 이후 2009년 시·도 광역문화재단 설립이 이후 지원사업의 대부분이 각 시·도로 이관됨.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다시 한번 더 중앙의 ‘지역협력형 사업’은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재편됨.
- 또한 중앙문예진흥기금의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 이후 각 광역문화재단

은 지역성을 담은 사업으로 재구성을 요구받고 있음. 이러한 정책변화 환경 속에 각 시·도로 사업 이관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 2020년 팬데믹 이후,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를 위한 지원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팬데믹을 마주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대면이 불가한 상황 속에서 예술 활동 역시 어려워져 예술생태계가 마비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생계지원, 일자리 지원과 문화예술 소비 촉진 지원 계획 수립함.
-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생태계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 계획 이전에도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실천이 추진됨.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수립,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립 등 예술인 안전망 확보를 위한 노력과 결실이 지속되고 있음. 이처럼 문화예술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 이자 과제는 안전한 환경의 조성,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 기반 마련임.

### 4.2. 서울시 문화정책 시사점

#### ■ 전환사회로의 변화 속 ‘시민’ 중심의 문화비전, ‘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과 안전망 구축

- 서울시는 기본계획인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통해 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차원의 문제를 명확히 하고 각 범주별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 특히 ‘시민’을 계획의 중심으로 두고 일상과 문화의 연결, 포용적 공동체 속 도시의 삶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
- 또한 서울시는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두 번째 계획인 <2025 서울예술인플랜>을 수립 중임. 당면한 환경변화와 위기 속에 예술인들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임. 구체적으로는 전환사회, 위기사회, 예술인 권리, 새로운 거버넌스의 의제를 중심으로 세부 추진 방향을 수립할 예정임.

### 4.3. 사회 및 문화예술환경 시사점

#### ■ 기술발달에 따른 문화예술의 확장

- 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문화예술활동의 시도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예술축제 역시 관점의 변화와 함께 새

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략이 필요함.

### ■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 및 변화에의 체계적 대응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방식의 예술 활동은 취소되거나 소수 인원으로 전환됨. 문화예술생태계의 정상화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예술환경 구축과 창작활동의 지원이 우선 과제가 되었으며, 이에 온라인 환경에서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더불어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대한 예술인들의 적응력 및 역량 강화와 새로운 예술 활동에 대한 기술적, 내용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제2절 예술축제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이슈 검토

### 1. 예술축제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검토

#### 1.1. 지원사업 추진 흐름(2004~2020)

##### 1) 시기별 추진 현황

<표 13> 예술축제지원사업 추진 흐름(2004~202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시민문예지원사업을 통해 우수예술축제를 지원			서울시 '서울대표예술축제' 지정지원사업 재단 이관('07) 서울예술축제지원사업 별도 신설 및 지원			서울대표예술축제 지정지원사업 → 공모사업 전환('11)		
						축제콘텐츠제작 및 교류 지원 (지역축제연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술축제지원사업(대표예술축제/우수예술축제) 통합 공모								
축제콘텐츠제작 및 교류 지원 (지역축제연계)				서울거리예술 축제 연계지원사업				

#### ■ 2004~2006 : 시민문예지원사업을 통한 우수예술축제지원

-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한 예술축제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시민문예지원사업 내 우수예술축제 지원을 시작함.

#### ■ 2007~2010 : 대표예술축제 재단 이관·축제사업본부 신설

- 2007년 서울시에서 별도의 공모·심사 없이 지정지원하던 '서울대표예술축제'를 재단으로 이관하여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지정)을 진행함.
  - ※ 5개 서울예술축제 지정지원 : 서울연극제, 서울무용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서울세계무용축제, 서울국제아동청소년 연극페스티벌
- 2002년 월드컵 응원의 열기를 이어 2003년부터 '하이서울페스티벌'이라는 브랜드로 운영되던 축제가 2008년부터 다양한 모습으로 확대 진행되며 축제사업본부를 신설함('08)

- 2010년부터 서울대표예술축제(지정)·우수예술축제 육성지원(공모)을 분리하여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창작지원사업에서 축제 분야가 분리되었음.

### ■ 2011~2012 : 대표예술축제 지정→공모 전환

- 2011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문예진흥보조금 횡령 부패 개선방안(2010.9.)'의 영향으로 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울대표예술축제 지정지원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전환함.

### ■ 2013~현재 : 예술축제지원사업(대표/우수) 통합 공모

- 2013년부터 서울대표예술축제 및 우수예술축제 육성지원사업을 '예술축제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공모 시행함.
- 우수한 축제콘텐츠를 육성하고 축제 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목적으로 서울거리예술축제(구 하이서울페스티벌)를 연계한 '축제콘텐츠 제작 및 교류 지원'을 2010년부터 지속해 왔으나 2018년부터 사업내용과 관련 예산을 이관하며 지원 종료함.

## 1.2. 지원사업 현황 및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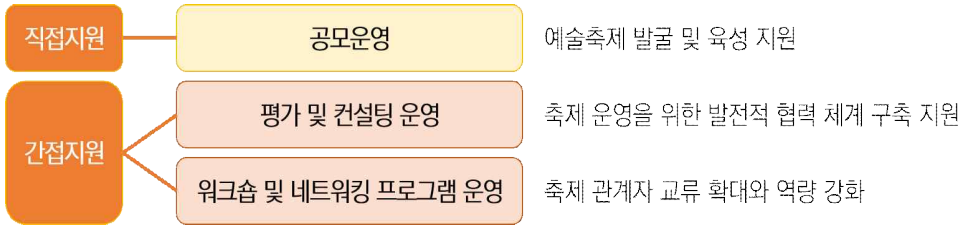
### ■ 사업개요

- 예술축제지원사업은 ①서울에서 개최하는 전문 예술축제를 지원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창작기반을 제고, 활동기회를 확대하고자하는 창작생태계 활성화 측면, ②축제 관람 및 참여를 통한 서울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측면과 나아가 ③서울의 우수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축제를 발굴·육성하여 문화도시 서울 조성에 기여하는 지역의 문화 역량 증대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음.
- 세부 추진과제로는 전문 예술축제 지원을 통해 예술인 및 단체의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고, 다양한 협업으로 문화협치 실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 지원체계 및 내용

- 예술축제지원사업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직접지원과 평가 및 컨설팅(현장평가, 전문가 좌담회, 종합 평가, 브랜드마케팅 컨설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간접지원 방식을 갖춘.

[그림 5] 예술축제지원사업 지원체계



-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사업은 대표예술축제와 우수예술축제 2분야로 나뉘어 공모 진행함. 대표예술축제는 3년 연속 축제지원으로, 2019년 대표예술축제로 기 선정된 8개 단체가 2021년까지 신규공모 없이 최소 5천만원 ~ 최대 3억원의 지원을 받음. 우수예술축제는 최근 3년간 1회 이상 개최하고 5명(개) 이상의 예술인(단체)이 운영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지원함. 단년지원으로 매년 18개 내외 축제를 1천5백만원 ~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함.

<표 14>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20)

구분	신청자격	지원내용
대표예술축제	- 2019 대표예술축제 지원에 기 선정된 축제(기 선정된 축제 대상 지원 적정성 및 지원금액 조정 인터뷰 심사 진행)	3년 연속지원 최대 3억원
우수예술축제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축제를 주최 및 주관하는 단체 혹은 조직위원회 ① 해당 축제가 최근 3년간(2017~2019) 최소 1회 이상 개최되었으며, ② 전문예술가 및 단체 5개 이상이 축제에 참여하고, ③ 2020.3.~2021.1. 서울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운영단체/주최기관	단년지원 최대 5천만원

- 간접지원방식은 크게 '평가 및 컨설팅 운영', '워크숍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눌 수 있음. 평가 및 컨설팅은 일반 시민과 축제/장르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축제 기간동안 현장평가를 진행하며, 이는 향후 행정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종합평가로 진행됨. 또한 브랜드마케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운영하여 희망 축제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행함. 워크숍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축제 관계자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있음.



<표 15> 예술축제지원사업 지원체계 및 내용

구분	내용	추진방향
직접지원	지원금 지급	- 대표예술축제 : 최대 3억원, 3년 연속 지원 - 우수예술축제 : 최대 5천만원, 단년 지원
간접지원	현장평가	- 일반 시민과 축제/장르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축제 기간동안 현장평가 진행
	전문가 좌담회	- 현장모니터링에 참여한 전문가 및 축제관계자가 참석하는 축제별 좌담회를 시행하여 현장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축제 발전 방향 논의를 통해 평가 결과 환류 강화
	종합 평가	- 현장평가(전문가40%+시민40%) + 행정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진행(예정)※평가계획 수립 시 세부내용 확정
	브랜드마케팅 컨설팅	- 브랜드마케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 브랜드 마케팅 자문위원”을 운영하여 희망 축제 대상 홍보/마케팅/브랜드 운영/실행 방법 컨설팅 시행
역량강화 프로그램	- 축제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 사업 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 간담회 시행 - 축제-전문가/자문위원, 축제-시민간 교류 확대를 위한네트워킹 프로그램 기획 등	

출처 : 예술축제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공모계획(‘20)

- 평가와 관련한 좌담회는 평가 대상 축제가 모두 참여하며, 2019년에는 23회 운영했음. 브랜드마케팅 컨설팅은 신청 축제에 한해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신청축제 10개를 대상으로 19회의 컨설팅을 운영하여 축제 당 약 2회의 컨설팅을 실시함.

<표 16> 2019 예술축제지원사업 평가 좌담회 및 브랜드마케팅 자문회의 성과

구분	참여축제	운영횟수	참여위원 수	
			인원	연인원
평가 좌담회	23	23	52	33
브랜드마케팅자문회의	10	19	15	55

-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축제 관계자의 기획 및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축제 간 네트워킹 간담회 등임. 워크숍의 경우 협찬/후원 제안서 작성, 기업과의 협업방식 등 실무자가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축제의 전문성과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제공함. 축제 단체 간담회는 협업, 벤치마킹, 운영 노하우 공유 등이 활발히 일어나 축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축제, 자문위원, 전문가, 시민 간 교류 프로그램 운영 됨.

<표 17> 2019 예술축제지원사업 워크숍 및 간담회 성과

구분	횟수	비고
사업설명회	1회	정기공모 사업설명회
선정축제 워크숍	1회	예술축제지원사업 선정단체 대상
시민모니터링단 간담회	2회	예술축제 시민모니터링단 선정 및 의견수렴
브랜드마케팅 컨설팅 운영 자문회의	1회	자문위원 운영을 위한 의견 수렴
브랜드마케팅자문위원 위촉식	1회	브랜드마케팅 자문위원 위촉
브랜드마케팅 컨설팅 신청축제관계자 간담회	1회	선정축제 의견 수렴
브랜드마케팅 컨설팅 자문위원 정기모임	2회	브랜드마케팅 자문위원 컨설팅 결과 공유

## ■ 지원사업 단체

- 예술축제지원사업 단체는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의 예술성과 전문성’, ‘사업성과’를 기준으로 선정되며 축제 프로그램으로서의 충실성, 지속가능성, 완성도, 브랜딩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짐.
- 2020년 선정 단체를 살펴보면, 총 28개 단체 중 대표예술축제는 8개, 우수 예술축제는 20개임. 대표예술축제의 경우 대부분 10년 이상 지원을 받아 온 단체로, 오랜 기간의 운영 노하우와 프로그램 기획 역량이 축적된 단체인만큼 축제의 비전과 방향성, 브랜딩의 완성도가 높은 편임. 우수예술축제 또한 신규 축제가 아닌 3년 이상 운영되어 온 축제들로, 축제 정체성과 세부 사업에 대한 구성 및 내용이 명확하며 새로운 기획이나 접근이 돋보임.
- 우수예술축제가 단년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선정 단체들의 역대 선정 내역을

살펴보면, 20년도 기준으로 3개 단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17개 단체는 짧게는 2년 연속 길게는 10년 동안 연속 지원 받았음을 알 수 있음.

- 우수예술축제 지원을 받다가 대표예술축제로의 성장을 한 단체는 2개 단체이며 대표예술축제로 진입함으로써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함.

※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표 18> 2020 예술축제지원사업 선정단체목록 및 축제별 지원금액

구분	연번	단체명	사업명	대표자	지원금(천원)
대표 예술 축제	1	서울연극협회	2020 제41회 서울연극제	김숙희	250,000
	2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제23회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2020)	전상인	230,000
	3	사단법인 와우책문화예술센터	2020 서울와우북페스티벌	이채관	70,000
	4	(사)한국무용협회	제41회 서울무용제	이종호	180,000
	5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집행위원회	2020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김연호	260,000
	6	(사)대안영상문화발전소아 이공	제20회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남하나	80,000
	7	프린지페스티벌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20	조남규	120,000
	8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 회한국본부	제17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송형중	170,000
<b>계</b>					<b>1,360,000</b>
우수 예술 축제	1	유아트랩서울	오픈미디어아트페스티벌	김정연	35,000
	2	사단법인 자문박물관포럼	자문박물관축제 '삶·예술·지역—커넥션'	이순중	30,000
	3	인디다큐페스티벌	인디다큐페스티벌2020	고영재	50,000
	4	서울국제음악제	2020 서울국제음악제 '위대한 작곡가들'	고민선	43,000
	5	ING 즉흥 그룹	제3회 서울 국제 댄스페스티벌 인 탱크(SIDFIT)	최문애	30,000
	6	(사)노름마치예술단	제 6회 흥 페스티벌	김주홍	40,000
	7	디피	레스-큐, 썸머	김지연	20,000
	8	프라이드 리퍼블릭	2020 서울프라이드페스티벌	김광수	38,000
	9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IPA P)	제20회 서울국제즉흥춤축제	장광열	20,000
	10	혜화동1번지 7기동인	2020 혜화동1번지 7기동인 가을페스티벌 "맞;춤"	임성현	40,000

11	북촌창우극장(주)	제8회 북촌우리음악축제	이호걸	40,000
12	테시그나레 무브먼트	제 9회 NDA 국제 무용 페스티벌 (New Dance for Asia 2020)	서윤신	20,000
13	라운드앤라운드 협동조합	2020 서울레코드페어	김민규	30,000
14	유어마인드	제12회 언리미티드 에디션 - 서울아트북페어 2020	서승협	35,000
15	권리장전	권리장전(權利長戰)2020 친일탐구	최샘이	30,000
16	창무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제26회 창무국제공연예술제	홍이룡	35,000
17	(사)세종솔로이스츠	2020 혁엡농크!(여기 그리고 지금)	이정남	30,000
18	사단법인 정가악회	국악대학전	천재현	35,000
19	아트판	2020 산울림 고전극장, 프랑스 고전과 예술적 상상력	임수현	35,000
20	오픈하우스	오픈하우스서울 2020	임진영	45,000
계				681,000

-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사업은 3년 연속 지원하는 대표예술축제와, 단년 지원하는 우수예술축제 두 갈래로 진행해오고 있음. 대표예술축제는 7~8개의 큰 규모 축제를 지원하며 예산 규모가 다소 작은 우수예술축제는 매년 20개 내외 단체를 지원해왔음. 2020년 기준 대표예술축제 단체별 평균 1억 7천만원을 지원하며(7천만원~2억6천만원) 반면 우수예술축제는 단체별 평균 3,500만원(2천만원~5천만원)으로 지원금 차이가 크게 나타남.

<표 19>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 신청 및 선정 현황(2017~2020)

구분	예술축제지원		서울거리예술축제 (SSFP) 연계지원	계	지원금액 (단위:천원)
	대표예술축제	우수예술축제			
2017	신청	7	99	13	2,057,000
	선정	7	24	6	
2018	신청	7	95	-	1,900,000
	선정	7	20	-	
2019	신청	11	69	-	1,920,000
	선정	8	17	-	
2020	신청	8	76	-	2,041,000
	선정	8	20	-	

## ■ 지원사업 추진조직

- 예술축제지원사업은 창작지원 내 지원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운영 조직은 예술지원본부가 아닌 문화시민본부 축제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축제팀은 서울거리예술축제, 서울축제지원센터, 예술축제지원, 서울시 연희단육성 지원, 서울시 대표 B-boy단, 아리랑문화세계화 등의 사업을 운영중임.
- 축제팀은 총 11명(팀장1, 과장2, 대리3, 주임5)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축제지원사업 업무는 1명이 전담하고 있음.

[그림 6] 서울문화재단 조직도



## ■ 평가체계

- 예술축제지원사업의 평가는 현장 평가(전문가 30%+시민 40%)와 행정평가(30%)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로 이루어짐. 현장평가와 행정평가를 합산하는 종합평가 운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원금 관리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 현장 평가는 일반 시민과 축제(장르)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 모니터링단을 구성, 축제 기간동안 현장평가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면밀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대비 실행 사항 및 지원금 적정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함. 축제 모니터링단의 평가 의견을 선정 축제에도 공유함으로써 축제에 대한 평가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함.
- 축제 모니터링단은 전문가 42명, 시민 39명(19년도 기준)으로 구성되며 인당 평균 3~6회의 평가를 진행하도록 함. 현장평가 종료 이후에는 평가좌담회 운영을 통해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쌍방향 의견교류의 장을 마련함.

<표 20> 예술축제지원사업 전문가/시민 현장평가 주요 성과('19)

구분	선정 건수	평가 대상	전문평가위원			시민모니터링단		
			평가 인원	연인원	평가 횟수	평가 인원	연인원	평가횟수
대표예술축제	8	7	14	22	75	26	34	73
우수예술축제	17	16	38	48	103	39	76	154
<b>계</b>	<b>25</b>	<b>23</b>	<b>42</b>	<b>70</b>	<b>178</b>	<b>39</b>	<b>110</b>	<b>227</b>

※ 2개 축제 평가시기 미도래(아시테지겨울축제, SCF국제안무페스티벌), 25개 축제 전체 평가 완료 예정

## 2. 예술축제지원사업 이슈 및 시사점

### 2.1. 지원체계 측면

#### ■ 대표예술축제 중심의 지원 규모 및 방식

- 현재 지원 체계는 대표예술축제에 모든 혜택이 집중된 구조로, 대표예술축제는 3년 연속 지원이 보장되어 자체 사무국 운영 등 안정성을 토대로 장기적 계획 수립 및 발전적인 축제 운영이 가능함. 반면 우수예술축제는 익년도 지원이 보장되지 않아 지속성에 대한 논의 및 계획 수립이 어려움.

#### ■ 간접지원의 실효성 검토

- 재단은 축제의 자생력 강화 및 축제 브랜딩 형성을 위해 직접지원 외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 컨설팅 등의 간접지원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해옴. 매년 브랜드 마케팅 참여를 원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19년도 브랜드 마케팅 참여 단체는 10개 단체에 불과함. 축제단체 측 수요가 많지 않고 실제 축제 운영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예술축제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지원금 지원 외 실효성 있는 간접지원체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함.

#### ■ 다수의 우수예술축제 연속지원에 따른 신규 축제 진입의 어려움

- 우수예술축제가 단년 공모 및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축제가 선정되고 지원을 받고 있어 신규 축제들의 진입 장벽이 높은 편임. 2020년도 우수예술축제로 선정된 20개 중 신규 지원을 받은 단체는 3개에 불과했음.

<표 21> 2020 우수예술축제 선정 단체 및 연속지원 현황

순번	축제명	단체명	지원년도			
			2017	2018	2019	2020
1	오픈미디어아트페스티벌	유아트랩서울				○
2	자문박문화축제 '삶·예술·지역—커넥션'	사단법인 자문박문화포럼	○	○		○
3	인디다큐페스티벌2020	인디다큐페스티벌	○	○	○	○
4	2020 서울국제음악제 '위대한 작곡가들'	서울국제음악제	○	○	○	○
5	제3회 서울 국제 댄스페스티벌 인 탱크(SIDFIT)	ING 즉흥 그룹				○
6	제 6회 흥 페스티벌	(사)노름마치예술단	○	○	○	○
7	레스-큐, 썸머	디피				○
8	2020 서울프라이드페스티벌	프라이드 리퍼블릭	○	○		○
9	제20회 서울국제즉흥춤축제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IPAP)				○

10	2020 혜화동1번지 7기동인 가을페스티벌 “맞;춤”	혜화동1번지 7기동인		○		○
11	제8회 북촌우리음악축제	북촌창우극장(주)	○	○	○	○
12	제 9회 NDA 국제 무용 페스티벌 (New Dance for Asia 2020)	데시그나레 무브먼트		○		○
13	2020 서울레코드페어	라운드앤라운드 협동조합			○	○
14	제12회 언리미티드 에디션 - 서울아트북페어 2020	유어마인드	○	○	○	○
15	권리장전(權利長戰)2020 친일탐구	권리장전		○	○	○
16	제26회 창무국제공연예술제	창무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	○	○	○
17	국악대학전	사단법인 정가악회			○	○
18	2020 산울림 고전극장, 프랑스 고전과 예술적 상상력	아트판	○	○	○	○
19	오픈하우스서울 2020	오픈하우스	○	○	○	○

- 다양한 축제콘텐츠가 발굴되고 육성되어 시민들의 축제 향유 확대를 위해 신규 축제 지원 트랙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연속 지원 단체들을 우수예술축제와 대표예술축제의 중간 트랙으로 분류하는 등 추가 지원 트랙이 논의되어야 함.

## ■ 축제 간 네트워킹 확대

- 브랜드마케팅 신청 축제 관계자 간담회 시행을 통해 현장 및 사례 공유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이는 축제 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노하우 및 정보 공유, 아이디어 개발이 가능한 간담회 추진이 필요함.

## 2.2. 평가체계 측면

### ■ 시민향유 평가 강화 노력

- 20년도부터 시민평가 점수의 비율을 높이고(20% → 30%) 전문가 평가 점수를 낮추는(50% → 40%) 등 축제 종합 평가 점수 구성 비율을 조정하여 평가 점수의 심사 반영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함.
- 행정평가와 중복되는 평가 지표는 축소하고 장기적인 목표 및 방향성 등에 대한 평가 지표를 신설하는 등 평가 지표 현행화를 진행함.



# 3

---

## 예술축제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제1절 예술축제단체 의견수렴

제2절 전문가(예술축제 평가위원) 의견수렴



# 제1절 예술축제단체 의견수렴

## 1. 의견수렴 개요

### ■ 의견수렴 개요

- 문헌분석으로 파악하기 힘든 현장 이슈 파악을 위해 예술축제 단체 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함.
- 예술축제를 둘러싼 내·외부적 이슈 파악 및 지원체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2020년 예술축제지원사업 축제단체 27개(33인)와 2020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단체 6개(7인)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함.

<표 22> 예술축제단체 의견수렴 개요

구분	세부내용
목적	- 서면자료로 파악할 수 없는 예술축제지원을 둘러싼 현안 및 이슈 파악 - 예술축제지원사업 체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대상	- 2020 예술축제지원 단체 27개(33인) - 2020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단체 6개(7인)
일정	- 2020년 11월 4일(2회차), 10일, 11일(2회차), 17일 총 6회 진행
방법	- 의견수렴 대상 심층인터뷰: 참석자들 간 자유로운 논의가 전개될 수 있도록 비구조화 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운영, 예술축제지원사업 체계 개선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와 과제 파악

### ■ 의견수렴 문항

- 의견수렴의 세 가지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설계하며 각 영역별 세부 문항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진행함.
  - 첫째, 예술축제지원사업을 둘러싼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 이슈
  - 둘째, 예술축제지원 체계 개선방향
  - 셋째, 예술축제의 정체성과 범위

<표 23> 예술축제단체 의견수렴 항목

구분	세부내용
지원체계	- 재단 예술지원체계 개선 관련 내부 이슈

<p>환경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지역대표공연예술제 등 지방이양으로 인한 향후 통합적 지원체계 관련 이슈 및 의견</li> <li>- 사업 이양 및 통합에 따른 현장의 체감도</li> <li>-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축제 현장 이슈 공유</li> </ul>
<p>현 지원체계 성과 및 이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축제지원사업의 차별성/특성(재단 내 타 사업과 비교 포함)</li> <li>- 예술축제지원사업의 성과 및 한계</li> <li>- 간접지원의 성과</li> <li>- 간접지원의 개선방향</li> <li>- 현재 예술축제지원 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li> <li>- 평가체계 개선방향</li> </ul>
<p>예술축제의 정체성 및 방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별 축제의 목표 또는 지향점</li> <li>- 서울문화재단의 비전 및 미션과 연계한 예술축제지원 방향성</li> <li>- 예술축제의 정체성 및 범위</li> </ul>

## 2. 의견수렴 결과

- 의견수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키워드로 요약됨. 축제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환경 등 축제 외부환경 변화 이슈, 향후 지원체계 개선방안, 간접지원 방안, 예술축제의 정체성 및 범위 등을 도출함.

### 1) 예술축제지원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의견

#### ■ 정책환경 변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중앙)가 주관하던 지역대표공연예술제가 각 지역으로 이관되며 발생한 이슈에 대해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단체와 중복 지원 단체의 의견 수렴을 진행함.
- 타 기관 및 지자체·자치구 등 중복 지원을 받는 단체는 사업 통합으로 인한 예산 삭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음. 지자체 이관으로 인한 행정적 통합이 진행되며 실무적으로 편해졌으나 향후 재단 사업 통합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울시로 사업이 이관되며 행정 시스템이나 절차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에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 재단 사업 통합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어 단체 자체적 대비가 필요하리라 예상합니다.“ (지역대표공연예술제 B팀)

”올해 사업 이관 과정에서 유연한 가이드라인의 부재가 아쉬웠습니다. 재단으로 사업이 통합되는 과정에 기존 체계가 전부 해체되고 0에서 재설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역대표공연예술제 O팀)

”서울시 축제는 예술의 전문성보다 시민 친화적 성격을 지향하기 때문에 예술성을 유지하기엔 재단 운영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체들이 현장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황 공유를 바랍니다.“ (지역대표공연예술제 C팀)

####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축제 환경 변화

- 축제 현장의 가장 큰 이슈였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축제 형태의 변화가 불가피했던 과정에서 단체가 풀어나가야 했던 고민과 과제, 진행방안 등을 공유함.

- 축제 고유 특성인 ‘현장성’과 ‘과정’을 위해 오프라인 개최를 감행한 축제와 온·오프라인 병행, 온라인 전환 축제로 나뉘며 다양한 현장 이슈를 공유함.
- **(오프라인 개최로 축제 현장성 유지)** 코로나19 확산으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축제 세팅이 처음부터 다시 이루어져야 했으나 축제의 고유성을 잃지 않기 위해 철저한 방역 체계를 갖추고 오프라인 개최를 감행함. 열악한 상황에서도 많은 관객들이 현장을 찾아주었음.

“운영단체가 장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공연 진행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 관객, 스태프가 모두 힘든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방역 대비를 해서 약 100일 가까이 공연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축제를 운영하며 고정 관객층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수예술축제 S팀, 6년 연속지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처음에는 온라인 전환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보니 무대를 온전히 영상에 담아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논의 끝에 우리 축제는 온라인 콘텐츠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체의 현장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관객이 줄더라도 오프라인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주체인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축제의 온라인화를 가속화 또는 의무화하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대표예술축제 Y팀, 10년 연속지원)

- **(온·오프라인 병행)** 축제 현장에 변수가 늘어나며 불가피하게 온라인 축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비용이 많이 발생함. 그러나 재난 상황에서 예산 사용에 대한 규제가 엄격했고, 비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짐. 온라인 콘텐츠 개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축제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하여 진행했습니다. 전시나 영화상영은 극장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공연, 체험 프로그램 같은 부스 운영은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진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르게 관객이 참여했습니다.” (우수예술축제 P팀, 7년 연속지원)

“올해 초 공연 일정을 잡고 축제 세팅을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예술의 전당이 폐관하게 되며, 축제 준비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대관료는 환불 받았으나 그 외 준비 비용이 전부 사라진 것입니

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유연한 대응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현상이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의 대응 매뉴얼이 확립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표예술축제 M팀, 10년 연속지원)

- **(온라인을 통한 축제의 확장)** 온라인 축제 콘텐츠를 통해, 평소 축제 참여가 어려웠던 지방 거주자들이나 전세계 외국인들에게 가닿으며 축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줌. 새로운 방향의 예술 장르와 관객이 생겨남. 오히려 장르적 특성에 따라 비대면 축제 운영이 원활한 단체가 있었으며, 축제 형태의 변주를 꾀하는 단체들도 눈에 띄었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축제에 대한 실험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았어요. 축제를 구독 콘텐츠로 바꾸어 진행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우수예술축제 R팀, 신규단체)

“축제가 온라인화되며 오히려 축제가 확장되는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장르적 특성상 굳이 대면하지 않아도 향유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참여 아티스트들 또한 비대면에 대한 적은 부담 덕분에 참여율이 높아 내년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대표예술축제 W팀, 10년 연속지원)

“축제 참여 50팀의 공연을 전부 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송출했습니다. 영상 작업 비용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으나, 영상이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축제 홍보 효과가 놀라울 정도로 상당했습니다.” (우수예술축제 I팀, 신규단체)

- **(국제축제)** 반면 국제축제의 경우, 해외 인사 초청이 불가능해지며 기존 축제 방식과 성격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을 보임.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제 축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작년까지는 해외 유명 아티스트와 국내 굵직한 안무가, 신진 안무가 등을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초청이 어려워지며 축제의 방향성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역대표공연예술제 B팀)

“국제축제였으나 지자체로부터 해외 초청을 지양해달라는 요청에 따

라 국내 공연 4회로 축소하여 진행했습니다. 축제의 체질이 바뀔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큼니다.”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O팀)

## 2) 예술축제지원 체계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 ■ 축제의 연속성 보장

- 대부분의 단체가 축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축제의 ‘지속성’ 담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임. 단년 지원방식에 따라 운영되는 축제는 매년 내년을 예상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로 준비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축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연속성이 보장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국제축제의 경우 해외 팀이나 관계자를 섭외하기 위해서 2~3년 전부터 계획하고 움직여야 하는데, 매년 지원신청을 하고 지원금을 교부 받는 체계가 축제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불안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보임.

“예술축제가 자립도를 높여가며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3~5년 단위의 통합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축제 운영을 마치고 정산을 하는 동시에 내년 축제를 준비해야 하는데, 지원금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니 매년 지원심사를 받으며 축제 준비를 하게 되는 불안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예술 축제 D단체, 10년 연속지원)

### ■ 이원화된 현 지원체계 재설계 필요

- 현재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은 대표/우수로 구분되어있음. 3년 연속지원의 안정성과 큰 지원 규모로 인해 대부분의 우수예술축제는 대표예술축제로의 진입을 꿈꾸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우수예술축제단체는 대표예술축제의 문턱을 높게 느끼며 과감하게 우수예술축제 지원을 포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 우수예술축제 연속 지원 단체가 많은 만큼 중간 단계의 지원 트랙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됨.

“우수예술축제도 대표예술축제처럼 연속 지원을 받으면 축제 콘텐츠에 좀 더 집중할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막상 대표예술축제를 지원하기에는 문턱이 높아 겁이 나는게 현실입니다. 우수예술축제 지원단체 대부분이 3~10년 연속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을 대표예술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중간 지원 단계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우수예술축제 H팀, 5년 연속지원)



“우리 축제는 우수예술축제로 4년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축제들과 마찬가지로 대표예술축제로 레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문턱이 높습니다. 대표예술축제 지원 제안을 받았으나 이미 지원규모가 정해져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단체 대신 진입하는게 불가능해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지원 구조상 대표와 우수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예술단체 C팀, 5년 연속지원)

### 3) 브랜드마케팅·컨설팅 등 간접지원에 대한 의견

#### ■ 단체별 맞춤형 지원

- 브랜드마케팅 및 컨설팅에 대해서는 대표예술축제와 우수예술축제별 의견 차이가 있었음.
- 대표예술축제는 축제 역사 및 규모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미 축제 브랜딩이 구축된 단체가 대다수임. 대표예술축제 지원단체는 단체의 수요와 필요사항을 면밀히 반영할 수 있는 다른 간접지원체계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우수예술축제는 지원사업을 통해 운영 체계를 갖춰나가기 시작한 단체가 많기 때문에 신규단체나 3~5년 연속지원 단체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보임.
- 종합적으로 축제 단체 자체적으로는 홍보·마케팅 규모와 비용에 집중할 여유가 없으나 재단에서 진행하는 간접지원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작년에 브랜드마케팅에 참여했으나, 이미 단체가 실행하고 있거나 굳이 우리 축제에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지적받자 이게 굳이 필요한 과정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축제는 비주얼디렉터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마케팅에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이미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예술축제에게 필요한건 브랜드마케팅이 아니라 다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예술축제 F팀, 10년 연속지원)

“브랜드마케팅을 해주시는 분들이 좋은 레퍼런스를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3회 안에 실질적 해결 방안이 마련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차라리 재단에서 직접적인 홍보를 통합적으로 진행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대표예술축제 W팀, 10년 연속지원)

“축제단체 관계자들이 대부분 순수예술 전공자이다보니 홍보·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브랜드마케팅에 2회 참가하였는데 축제를 어떻게 홍보하고 이슈화시켜야 하는지 등 축제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수예술축제 C팀, 5년 연속지원)

“브랜드마케팅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나, 축제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짧은 기간에 받기 때문에 축제에 실제 반영을 하기 어렵습니다. 컨설팅이나 브랜드마케팅 시기가 조정된다면 받아보고 싶습니다.” (우수예술축제 H팀, 5년 연속지원)

“축제의 정체성이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의 방향성이 확실하다면 브랜딩도 명확할 것입니다. 브랜드마케팅을 받을 때 다른 축제의 경험을 얻는 것 같아 처음 받고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축제 단체에게 브랜드마케팅이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잘되면 지원이지만 잘 안되면 일이 됩니다.” (우수예술축제 G팀, 4년 연속지원)

“축제는 컨설팅보다 실행을 도울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재단이 직접 홍보를 진행하거나, 최근 홍보·마케팅 트렌드를 공유해주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수예술축제 M팀, 5년 지원)

## ■ 간접지원분야 세분화

- 브랜드마케팅 및 컨설팅에 대해서는 단체별 다양한 의견이 도출됨. 축제 브랜딩 외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홍보, 영상제작, 디자인, 노무/세무, 법률 등)의 지원 수요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 **(노무·법률적 지원)** 축제의 온라인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법률적 배경지식 없이 일단 축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실정임. 저작권에 관련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함. 또는 관련 문제 발생시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와 통로가 필요함.

“올해 온라인 진행을 하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방송국에

영상 원본을 공유했는데, 결과물을 보니 편집이 되어 우리 축제에 대한 맥락이 전혀 담기지 않은 채 재사용 되었습니다. 단체마다 온라인 콘텐츠 관련 경험이 없다보니, 저작권 관련 컨설팅 등을 통한 단체의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수예술축제 O팀, 4년 연속지원)

- **(장소 관련 플랫폼 구축)** 축제 장소는 곧 축제의 연속성과도 직결되는 사항임.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내 공공공간이 일괄 폐쇄 조치되며 축제 개최를 위한 장소 섭외가 어려웠음. 결국 공공공간을 포기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간을 찾아야하는 힘든 상황이었음.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시 산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장소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의견을 보이며 서울 지역 내 장소 인프라를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을 제안함.

“지금까지는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같은 공공공간에서 축제를 진행해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민간공간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예술축제 S팀, 8년 연속지원)

“지난 10여년간 장소 섭외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특정한 장소를 나눠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재단에서 장소 인프라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수예술축제 R팀, 6년 지원)

- **(행정인력 지원)** 축제 운영 인력이 한시적이다보니 운영의 연속성을 갖기 어려운 부분이 파악됨. 인건비 지원 외 행정·매개인력 매칭 등 다양한 방안 논의가 필요함.

“올해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전면 도입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단체들은 스태프들의 최저 시급을 챙겨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으나 이미 있는 예술인의 일자리는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부터 서울시에서는 6개월 이상 연습 및 작품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뉴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도 이러한 정책 트렌드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예술축제 Y팀, 10년 연속지원)

- **(통합 홍보 플랫폼 구축)** 많은 축제가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예산·시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재단의 통합 홍보 플랫폼 구축이나 지자체 및 자치구 온라인 홍보 등을 요청하는 의견을 보임.

“대부분의 축제 단체가 예산 내 홍보마케팅 비용을 거의 설정하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이 삭감될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과목이 홍보마케팅 비용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축제를 널리 알릴 수 있을지 뚜렷한 방안이 없습니다. 재단에서 직접 홍보마케팅을 진행해주는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수예술축제 H팀, 5년 연속지원)

“지금까지 가로등 배너나 현수막 외에 마땅한 홍보 채널이 없었습니다. SNS 활용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에서 자치구와의 홍보 플랫폼을 공유하거나 새로 만드는 부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한 관객 유도를 위해 문화회식, 학교 공연단체관람 등을 축제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예술축제 S팀, 10년 연속지원)

- **(기술적 지원)**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 필수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단체는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기에 한계가 있음. 영상 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임. 영상 제작 비용을 따로 설정해주거나 또는 직접 영상 전문가를 파견해서 재단이 주도적으로 제작해주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통 의견이 도출됨.

### ■ 축제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 많은 단체들이 단체 간 네트워킹 채널 마련을 요청함. 예술축제 관계자들이 모여 고민과 공감을 나누고 축제 담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원 트랙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임. 네트워킹을 통해 축제 간 협력 체계가 생기면 현장 이슈를 공동 대응할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임. 또는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서면으로라도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임.

### ■ 민간지원 매칭

- 사업이 계속해서 이관되고 통합되는 상황에서 국가 지원금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임. 단체 중 일부는 향후 재단 통합시 재단에서 축제가 민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매칭(재단 메세나팀 연계) 가능 여부 검토를 요청함.

#### 4) 예술축제의 정체성과 범위에 대한 의견

##### ■ 예술 전문성 강화 vs 시민향유 확대

- 대부분의 축제 단체가 ‘예술축제는 시민 향유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전문적인 예술 콘텐츠와 축제를 만드는 것이라는 의견을 보임.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축제 및 문화예술 단체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역으로 이관되며 예술의 전문성보다는 생활문화에 초점이 맞춰지는 점이 아쉽습니다. 시민 향유 측면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오로지 시민 향유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예술축제의 정체성과 어긋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 축제에게 지역다움을 강요할수록 더욱 축제가 좁아지지 않을까요?” (우수예술축제 K팀, 2년 연속지원)

“예술축제는 대중 친화 보다는 예술의 실험성, 창작 생태계를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시민이 함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관객 몰이에만 집중할 수 없습니다. 각종 지역 축제와는 다른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원체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대표공연예술제 C팀)

“지금까지 축제 기간에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항상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시민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게 되었으나, 오히려 공식 선정작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축제 부대 프로그램이 늘어나다보면 축제의 중심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축제를 찾는 관객에게 잘하고 싶은데, 잘한다는 게 무엇이나 하면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공연 관람을 통해 고정 관객층이 계속 생성되고, 관객이 생기면 유료 티켓 판매가 수월해집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극단은 예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작품에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 퀄리티 있는 작품과 축제가 펼쳐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입니다.” (대표예술축제 Y팀, 10년 연속지원)

##### ■ 축제별 지향점

- 예술 생태계 강화, 해당 장르 대표 축제로의 도약, 대중과의 점점 마련 등 축제별 다양한 목표와 지향점이 나타났음.

“국내 대표 문학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자 함. 시민 향유 확대와 동시에 새로운 작가·스피커 발굴을 목표로 함” (대표예술축제 W팀, 10년 연속지원)

“예술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함” (대표예술축제 T팀, 10년 연속지원)

“비대면 축제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큼. 1차적 목표는 축제가 지속 가능한 것임” (대표예술축제 S팀, 8년 연속지원)

“관객몰이보다는 본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예술가들에게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 예술가에게 창작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새로운 예술 담론을 발굴해내고, 새로운 예술가와 실험적인 형식을 찾고자 함” (대표예술축제 F팀, 10년 연속지원)

“국제적으로 저명한 안무가 및 무용가의 신작 초연을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임” (대표예술축제 M팀, 10년 연속지원)

“대중들의 순수예술 경험을 늘리는 것” (대표예술축제 B팀, 10년 연속지원)

“양질의 공연 제작으로 유료 관람객을 늘리고, 예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임” (대표예술축제 Y팀, 10년 연속지원)

“시민들에게 낯선 장르의 경험을 새롭게 선사하는 것” (지역대표공연예술제 O팀)

“무료 관객을 줄이고 유료 관객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지역대표공연예술제 M팀)

## ■ 평가 기준 및 방식 변화 필요

- 축제 현장이 빠진 서류를 통한 행정적 심사 방식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단체가 많았음. 축제는 매년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원 예산 및 평가에도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이는 매년 정량적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 평가 방식이 아닌 축제 자생력 강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축제지원은 타창작지원과 다른 심의기준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평가 방식의 전환이 필요함.
- 시민 평가단의 의견이 축제 모니터링에 유의미한 경우가 많았으며, 향후 확대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보임.

## 제2절 전문가(예술축제 평가위원) 의견수렴

### 1. 의견수렴 개요

#### ■ 의견수렴 개요

- 예술축제 및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예술축제 평가위원)를 대상으로 예술축제지원사업 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연구 내용 및 결과의 질적 전문성을 담보하고자 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전문가(예술축제 평가위원) 의견수렴은 서면인터뷰로 진행함.

<표 24> 전문가(예술축제 평가위원) 의견수렴 개요

구분	세부내용
목적	-예술축제지원사업 체계 개선 방향성 모색 -연구내용의 전문성 담보 및 실효적인 연구결과 도출
대상	전문가(예술축제 평가위원) 6인 -김*희 서울예술단 공연기획팀장 -김*리 무용학자,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 겸임교수 -민*아 음악평론가,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윤*진 한강몽땅 총감독 -이*미 연극평론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최*우 연극평론가, 한국소극장협회 사무국장
일정	- 2020년 11월 19일(목) ~ 25일(수), 7일간
방법	- 서면인터뷰

#### ■ 의견수렴 문항

- 전문가(예술축제 평가위원) 의견수렴 항목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영역의 개방형 질문으로 설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표 25> 전문가(예술축제 평가위원) 의견수렴 항목

구분	세부내용
의견수렴 항목	-예술축제지원 체계 환경 변화 -예술축제의 정체성(개념 및 범위) 및 방향성 -현 지원체계의 성과 및 이슈, 개선방향

## 2. 의견수렴 결과

### 1) 예술축제의 정체성

#### ■ '예술축제' 범주 재정립 논의 필요

- 예술축제의 정체성을 살펴보기 앞서 '축제' 용어의 재정립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함. 현재는 축제, 이벤트, 카니발, Fair 등의 혼재된 개념이 '축제'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sup>4)</sup>, 위와 같은 용어들에 대한 개념 정립과 '축제'의 범주 재정립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용어의 재정립을 통해 서울시 문화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에 따른 「예술축제지원사업」의 대상과 방법, 그리고 목표설정이 가능해질 것임. 하여,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축제' 및 '예술축제' 범주와 정체성에 대한 논의의 장이 필요함.

#### ■ 메가시티인 서울의 지역성과 혁신성을 담은 예술축제

- 메가시티<sup>5)</sup>인 서울은 지역단위 문화향유자인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및 전세계에서 모이는 높은 문화소양(cultural literacy)을 보유한 문화향유자를 대상으로 한 축제콘텐츠가 필요함. 이에 서울시는 타 광역시도와 달리 '예술축제' 지원을 통한 축제의 실험적 시도와 새로운 형태의 축제 육성이 가능하고, 필요한 도시임.
-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문화인프라 현황과 실험예술이 활발히 시도되고 교류되는 지역적 토양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예술축제지원사업」을 통해 예술 장르별 축제를 지원을 지속해왔음. 이 과정에서 축적된 예술축제의 정체성에 대한 화두를 살펴보고자 함.

### 2) '예술축제지원사업'의 정체성과 개선 방향

- 앞서 살펴본 '예술축제의 정체성'은 결국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축제지원사업」 경험으로부터 발현된 화두일 것임. 하여 본 연구를 통해 진행된 의견수렴 과정에서 모아진 '예술축제의 정체성' 관련 내용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4) 서울축제지원센터 역할모델 정립 연구보고서, 2014.

5) 행정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생활, 경제 등이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는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 도시를 말함.



<표 26> ‘예술축제의 정체성’ 관련 의견수렴 시사점 종합

구분		내용
예술적 측면	수월성	-장르예술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저변확대 -예술가들의 발표기회 제공을 통한 예술창작활동 촉진 -‘예술가’ 중심 협업의 장(場)으로서 독창적이고 수준 높은 창작활동 촉진 -발표의 장에서 더 나아간 질적(미학적) 발전의 토대
	접근성	-시민 참여자들에게 반복적 경험 제공을 통한 문화적 풍요 토양 마련 -장르 예술과 일반관객이 만나는 문화 향유의 장(場)
	혁신성	-새로운 (실험적 축제)경험의 제공과 그로 인한 새로운 가치 발견
사회·문화적 측면	통합성	-예술과 시민이 만나고 나아가 시민 간 소통의 장(場)이자 플랫폼(시민 간 소통의 매개체 역할로서 예술축제)
행·재정적 측면	정치성	-국가의 문화적 자산을 만들어 문화적 자부심과 자긍심 고취
	경제성	-장르예술 수용자층 확대를 통한 장르 예술시장 활성화

- 「예술축제지원사업」의 정체성 의견의 시사점을 종합하면 ①예술적 측면에서는 수월성 제고를 통한 수준 높은 예술창작 활동 확대와 이를 통한 시민 접근성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이어서 ②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통한 새로운 가치 발견, 예술축제의 매개성을 통한 시민 상호 소통성 확대를 기대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마지막으로 ③행·재정적 측면으로 국가 문화적 자산 발굴을 통한 문화적 자부심 고취, 장르예술 소비자 확대를 통한 예술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음.

### ■ ‘예술축제지원사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

- ‘예술축제’의 정체성 화두로부터 확인된 「예술축제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주요내용과 시사점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27> ‘예술축제지원사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개선 방향 종합

구분		내용
예술적 측면	수월성과 접근성	- (수월성) 질적고도화 지원방향 필요 - (수월성) 지속적인 예술가들의 협업과 독창성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 필요 - (수월성) 대규모 대표예술축제 지원의 고도화 필요 ※ 조직역량 강화, 재원조성 활동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 (접근성) 소규모 민간 예술축제 지원 및 확장 필요 ※ 인큐베이팅, 간접지원 등 - (수월성과 접근성의 조화) 예술, 예술가, 시민이 연동되는 축제 필요
	다양성과 확장성	- 동시대의 이슈 등 다양성, 확장성 추구 필요함 - 담론 형성이 가능한 실험적인 축제 지원 확대 필요

		-축제 내 큐레이션과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력 지원 확대 필요
행정적 측면		-예술가들의 활동을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로서 지원 필요
공공성 측면		-서울의 지역적 특성과 공공성을 고민하는 축제 유입을 위한 지원 필요

- 「예술축제지원사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 의견을 종합하면 ①예술적 측면에서는 수월성 제고와 이를 통한 접근성 확대를 이뤄내는 조화로운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대상별 지원내용의 차별화를 통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음. 더불어 다양성과 확장성을 위한 기획인력 지원과 실험적인 축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함. 이어서 ②행정적 측면에서는 예술가와 행정이 파트너로서 고민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마지막으로 ③서울의 지역성을 드러내고 공공성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축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 2) 예술축제지원사업 체계 개선방향

### ■ 예술축제지원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의견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이슈 공론화, 합리적 개선방향 모색 필요**
  -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이 추진하던 중앙 사업이 각 지자체로 이관, 이는 지역분권(지역의 독립성·자율성)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사전에 지자체 이관에 대한 세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임. 그간 예술축제가 견지해온 취지와 방향성, 정체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축제 외부환경 변화 대비 필요**
  - 축제의 ‘공간성’과 ‘현장성’은 축제의 본질적 요소이기에 비대면 방식으로서 무리한 전환보다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우선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서의 전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축제 콘텐츠를 디지털 포맷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관람객의 태도가 공연장 객석에서의 태도와 같지 않다는 점을 주지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예술현장의 확장성과 관객의 접근성, 또 다른 표현형식의 방식으로써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의 전환이 충분히 논의되고, 발전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선부른 접근임.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시도되어야 하고, 향후 예술축제로 개척될 수 있음을 고려했을 때 오프라인보다 더 요구되어야 할 구체성은 물론, 해당 축제를 바라보는 관점, 평가체계, 접근방식도 새롭게 고민될

필요가 있음.

## ■ 예술축제지원 체계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 **예술축제지원의 원칙과 방향성 구축-지원사업의 목표 명확화 필요**
  - 본 지원사업은 타 예술 지원체계 대비 결과 중심적인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실제 신규 축제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고 현재 선정된 축제들이 각 장르 협회 등을 중심으로 한 축제가 다수인 것도 이를 강화하는 부분임. 관성적 연속 지원 및 신규 축제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예술축제지원의 기본원칙과 방향성을 정립, 장기적 관점에서의 예술축제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대표-우수예술축제 지원체계의 세분화**
  -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예술축제 지원사업은 신규축제의 진입이 어려운 구조임. 대표예술축제는 3년간 유지되는 지원체계를 갖고 있고, 우수예술축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탈락의 근거·명분을 찾기 힘든 구조인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지원체계의 변화를 통한 신규 축제의 진입 기회를 확장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대표-우수로 이분화되어 있는 지원체계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예술축제의 역할과 기능을 질적으로 고도화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하는 시점에서, 필요 지원영역으로 소규모 민간 예술축제를 촉진하기 위한 작은축제 지원사업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자생력을 담보할 수 있는 다년 지원방식 모색 필요**
  - 축제의 자생력 강화는 지속성에 있고, 지속성은 안정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담보되어야만 가능하기에 예술축제 지원의 경우 일정 정도 다년 지원 방식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연속 연수에 따라 지원금이 줄더라도 최소 2년 정도의 계획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지원금의 규모보다 더 필요한 요소일 수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간접지원 관련 수요

- **축제별 간접지원의 세분화/맞춤화 필요**
  - 상대적으로 연혁이 길지 않은 축제에게는 자생력보다는 성장이 더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고, 이미 브랜드력을 갖춘 축제에게는 새로운 시도나 프로그램의 확장이 목표가 될 수 있음. 결국 예산 지원 외 간접지원 부분은 축제 규

모, 연혁, 성장 단계, 장르, 조직 성격 등에 따른 세부 구분을 바탕으로 논의 될 필요가 있음.

- 다시 말해 사업비 차등지원 방식의 직접지원으로는 다양한 축제 성장을 촉진 할 수 있는 지원기능에 한계가 있음. 축제의 유형별, 성장단계별, 장르별, 조직성격별로 요구되는 지원요청에 대한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사업비 지원 이외에도 간접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 **예술축제 질적 제고를 위한 R&D 지원**

- 기존 축제들이 문제의식 없이 관성적으로 축제를 재생산하는데 그치지 않도록, 다시 말해 새로운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리서치, 연구 등의 지원도 새롭게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재원 조성 활동 지원**

- 축제 조직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축제 조직 스스로 재원 조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창구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 : 재원 조성 관련 맞춤형 컨설팅

- : 멤버십 회원제도, 민간 후원인 모집을 위한 후원 파티, 기부금 모금, 민간 기업파트너십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재원의 유치를 위한 실질적 지원 창구 마련

- : 신규단체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은 기업과의 협력 부분을 재단의 메세나지원사업과 연계

- **다양한 영역의 맞춤형 컨설팅**

- 축제별 처한 상황 및 이슈들이 다르기에 축제별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맞춤형 컨설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 앞서 언급한 재원 조성 관련 컨설팅을 비롯하여 축제 콘텐츠 및 프로그래밍, 관객 개발, 홍보, 미디어 기술 등 영역의 컨설팅 및 자문

- **예술축제 공유플랫폼 및 채널 운영**

- 서울시 예술축제 통합 전산망과 정보플랫폼 구축으로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보·마케팅의 예산, 인력, 시간을 줄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음. 나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기점으로 변화한 온라인 축제의 전환 창구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기타 간접지원 수요

- 장소대관 협조, 축제 간 네트워킹, 국제교류 지원 등의 간접지원 확대가 필요함.

## ■ 평가체계에 대한 의견 및 개선 방향

- 예술생태계 구조에 맞는 평가지표와 체계 검토의 필요성

- 현재의 평가지표는 현재 예술생태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축제의 성장을 위한 평가지표 체계가 필요함. 예술기반/예술활성화/예술유통으로 축제를 분류하여 축제를 통해 예술생태계의 선순환구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분 필요함.

- 명확한 평가기준 제시 필요

- 명확한 지원사업의 목표와 연동된 성과목표 맞춤형 평가기준 및 체계가 필요함.

- 비계량적 항목들로 구체화된 평가 필요

- 계량적 성과를 중심으로 한 관광축제형 평가에서 벗어나 예술계의 지속적인 영향과 관련한 비계량적 항목들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 심사 및 평가위원 전문성 의존 줄일 필요

- 정책적 차원의 평가분류 및 체계를 명확하게 정립하여, 심사 및 평가위원의 개인적인 전문성 의존을 줄일 필요가 있음. 심사위원, 평가위원의 전문성에 따른 지원 결과와 축제 성과 평가 결과의 편차가 벌어지는 문제점 해소가 필요함.

- 평가위원의 전문성 신장 필요

- 관행적인 운영이나 주관적인 프로그래밍을 견제할 수 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컨설팅과 심사를 결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축제의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함. 축제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이 선정되어야 함.

## ■ 심의구조에 대한 의견 및 개선 방향

- 장르별 심의구조로 개편 필요

- 예술축제 선정심의를 통합심의에서 장르별 심의로 구분하여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새로운 형식과 장르의 축제에 대한 파급성, 동시대적 관점에서

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심의구조가 필요함. 동시에 선정심의 체계 개선을 통한 객관성 확보 역시 필요함.

# 4

---

## 예술축제 지원체계 개선방향

제1절 예술축제 지원체계 개선의 주안점

제2절 예술축제 지원체계 개선방향





## 제1절 예술축제 지원체계 개선의 주안점

-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사업을 둘러싼 외부환경 및 내부현황 검토, 지원체계 관련 의견수렴을 종합, 분석하여 도출한 지원체계 개선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음.

### 1. 예술축제의 자생과 혁신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체계 개선방향 도출

- 2004년부터 지속되어온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사업의 정체성과 지향 가치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전제 가운데, 큰 틀에서는 민간 전문예술축제의 성장과 자생, 혁신과 실험이 담보되어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 향후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사업이 직면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선 방안들이 마련되어야하겠지만, 핵심적으로는 대표-우수 예술축제로 이분화되어 있는 지원체계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축제의 역할과 기능을 질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 개선방향을 도출함.

### 2. 실효성 있는 간접지원체계 개선방향 도출

- 전문예술축제의 성장과 질적 제고를 위해 직접지원(보조금지원)을 포함한 간접지원(평가, 컨설팅, 워크숍,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다양한 예술축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기능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축제의 유형, 성장단계, 장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간접지원의 확대, 다양화 측면에서 개선방향을 도출함.

### 3. 지원사업 목표 및 방향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개선방향 도출

- 앞선 현황 검토에서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점진적으로 예술축제지원사업의 평가체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술생태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단체별 지원사업 연간계획, 목표 등과 연동한 평가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원사업 목표 및 방향성을 고려한 평가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슈 공유와 함께 평가 실행체계 개선방향을 도출함.

#### 4. 예술축제 거버넌스 개선방향 도출

- 장기적으로 도시문화 관점에서 예술축제,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예술축제의 성장과 자생, 혁신과 실험 관련 담론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예술축제 거버넌스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술축제지원사업 실행 주체인 행정을 비롯하여 예술가, 축제 전문가, 시민 활동가가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선방향을 도출함.

## 제2절 예술축제 지원체계 개선방향

### 1. 예술축제 지원체계 개선방향

#### ■ 예술축제의 정체성과 지향가치의 명확한 설정

- 예술축제지원사업은 그 동안 지원사업이 추구하는 명확한 상 없이, 다시 말해 지원사업이 견지해온 원칙과 방향성이 선명하지 않은 채 지속되어 왔음. 이는 예술축제를 선정하는 기준, 성과평가 등에도 영향을 미쳐 축제 현장에서도 혼란의 요소로 작용하였음. 때문에 예술축제지원사업에 대한 정체성과 지향가치를 명확하게 설정, 이를 반영·전제한 축제의 선정 및 성과평가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 예술축제의 성장 및 자생력 담보, 예술축제의 성과·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다년 지원방식으로 통합

- 축제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축제 스스로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환경이 담보되어야 함. 다시 말해 지속성이라는 환경이 담보되어야만 가능한데, 현재 지원체계는 기존 축제들이 문제의식 없이 관성적으로 축제를 재생산하는데 그칠 수 있는 환경(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탈락의 근거·명분을 찾기 힘든 구조)에 노출되어 있고, 새로운 실험적 시도나 프로그램 확장을 위한 신규 축제 진입이 어려운 구조임.
- 따라서 대표-우수 예술축제로 이분화되어 있는 지원체계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축제를 다년 열린지원으로 통합, 예술축제 스스로가 성장 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예술축제의 전문성과 더불어 축제별 지향하고 있는 예술성, 다양성, 확장성, 포용성, 혁신성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도록 함.
- 다년 열린지원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논의할 사항이지만, 원칙은 예술축제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원연도와 예산이 유연하게 발휘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임. 이때 전제되어야 할 것은 예술축제별 중장기 계획에 따른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목표한 성과가 달성되었는지, 그 파급효과는 어떠한지 확인, 예술축제의 성장과 자생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 ■ 예술축제의 혁신성, 실험성을 확장할 수 있는 단년 지원방식 개발

- 예술축제의 역할과 기능을 질적으로 고도화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 축제 진입을 고려한 단년 지원방식이 개발·확대될 필요가 있음.
- **(혁신+실험적 예술축제 인큐베이팅)** 우선 예술축제의 정체성이자 본질적 요소에는 ‘혁신성’과 ‘실험성’이 전제되어 있기에 이를 고려한 지원방식이 새롭게 시도될 필요가 있음.
- **(작은축제 지원)** 예술생태계의 선순환 구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소규모 민간 예술축제를 촉진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고려한 작은축제 지원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단년 신규 축제 지원)** 예술축제의 다양성, 성장을 위한 신규 진입의 창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 간접지원 개선방향

### ■ 홍보 플랫폼 구축 및 지원 신설

-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서울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기관에서 보유한 홍보 채널을 연결하고, 참여 단체의 홍보 채널을 공유하여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홍보 플랫폼 구축 필요. 또한 각 단체별 축적된 노하우 공유를 통한 역량 강화의 장(場) 기능도 포함됨.

### ■ 비대면 콘텐츠 관련 법률 컨설팅 및 역량 강화 지원 신설

- 팬데믹 이후, 비대면 콘텐츠 제작이 필수가 된 상황 속에서 특히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필수적으로 법률 컨설팅 지원 및 관련 역량교육 지원이 필요함.

### ■ 비대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신설

- 영상 콘텐츠 제작이 주를 이루는 비대면 콘텐츠 환경 속에 각 축제를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이 필요함. 단계적으로, ①기술 역량 강화 지원 ②영상 기자재 대여 및 공유 체계 구축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음.

### ■ ‘축제 장소 공유플랫폼’ 구축 신설

- 단체들은 축제 추진 시 장소 섭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①서울시가 보유한 공유 가능한 장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②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간 정보의 접근성을 신장하고 ③향후 민간이 보유한 공간 정보까지 포함된 장소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한 간접지원이 신설될 필요가 있음.

### ■ 맞춤형 브랜드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으로 재편

- 단체별 축제의 규모 및 성장 시기 등을 고려한 맞춤형 브랜드마케팅 지원으로 재편의 필요가 있음. 또한 재편된 지원사업 체계에 맞춰 지원사업 수혜 기간(다년간) 동안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연동시키고, 나아가 축제의 자생력을 위해 멘티로서 또는 향후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민간기업 및 전문 컨설팅단 매칭이 필요함.

### ■ ‘예술축제 네트워크’ 신설 및 정례화

- ‘예술축제 네트워크’ 신설 및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함. 간접지원의 예산의 많은 부분으로 편성하여 정례화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지원사업에 오랫동안 참여한 단체들의 누적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또한 주제별 네트워크를 통한 역량강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축제 간 협업의 토양을 만들어 낼 수 있음.

## 3. 평가체계 개선방향

### ■ 예술축제의 성과와 지향가치를 무엇으로 바라보는지 명확한 상 정립 필요

- 「예술축제지원사업」은 지원의 원칙과 방향성 구축을 통한 지원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그동안 성과를 무엇으로 바라보는지 명확한 상이 부재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이제는 명확한 목표에 따른 평가체계 역시 필요함. 더불어 신규 축제가 진입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재편함에 따른 심의 및 평가체계 역시 필요함.

### ■ 지원사업 개선방향과 연동된, 단체별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 개선

- 재편된 지원사업 체계에 맞춰 단체별 지원사업 연간 계획과 연동된 평가체계가 필요함. 축제 별 연간 계획에 따른 목표에 맞는 평가와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평가위원의 연속성 역시 확보되어야 함. 특히, 심의와 평가를 동일한 평가위원이 진행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함.

#### ■ 시민 모니터링단 대상의 축제현장평가 비중 확장 및 강화

- 시민 모니터링단의 축제현장평가 내용의 구체성과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축제 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음. 이에 시민 모니터링단 대상의 축제현장평가 비중을 늘릴 필요성이 있음.

#### ■ 전문 평가단의 질적 향상 및 축제별 맞춤 평가 필요

- 기존 전문 평가단의 질적 향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각 단체별 목표 및 방향성을 담아내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있음. 하여 전문 평가단의 전문성 확보를 시사하고 있음. 더불어 지원사업 재편에 따른 각 단체별 연간 계획과 목표에 적합한 평가가 필요함.

### 4. 거버넌스 개선방향

#### ■ 예술축제 거버넌스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필요

- 정책기조로부터 시작한 지역 이관과 팬데믹 이후 마주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예술축제 지원사업 재편이 필요하며,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의 예술축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 도출을 위한 계획 수립 역시 필요함.

#### ■ 거버넌스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술축제위원회’ 운영

- 예술축제 사업은 재정마련과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주체인 서울시와 사업의 주관 주체인 서울문화재단이 단위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님. 예술축제 관련한 담론을 함께 논의하여 의제 발굴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및 평가체계 마련 논의를 수행할 ‘예술축제위원회’가 필요함.
- 또한 위원회 구성원은 축제 전문가, 예술가 시민 활동가, 행정단위를 포함하며 열린 방식의 운영 구조를 마련해야 함. ‘예술축제위원회’는 재편된 예술축제 지원사업에 따라 심의와 평가위원의 역할을 수행함. 더불어 예술축제의 정체성 확립과 도시문화 관점의 예술축제 성장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나갈 필요성이 있음.

### ■ ‘예술축제 네트워크’운영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 필요

- 예술축제 지원사업을 통해 다년간 지원받은 예술단체에게 필요한 간접지원 중 하나인 ‘예술축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예술가, 예술단체, 축제에 관심 있는 시민 등 축제를 만들어가는 현장활동가를 중심으로 관련 이슈를 나누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동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 또한 ‘예술축제 네트워크’는 향후 예술축제 거버넌스의 구심점으로 작동 할 수 있는 열린 구조의 설정하고 응집성과 확장성을 기본 방향으로 가져가야 함.

### ■ 전환의 시대, 대응을 위한 ‘예술축제 포럼’ 개최의 필요성

- 성장이 아닌, 지속가능성이 목표가 된 전환의 시대에 경험과 화두를 나누고 논의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장(長)이 필요함. 이에 ‘예술축제 포럼’ 개최의 필요성이 있음.





# 5

---

## 연구결과 종합 및 후속연구 방향

제1절 연구결과 종합  
제2절 후속연구 방향

## 제1절 연구결과 종합

### 1.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 지원체계 방향성을 그리는 기초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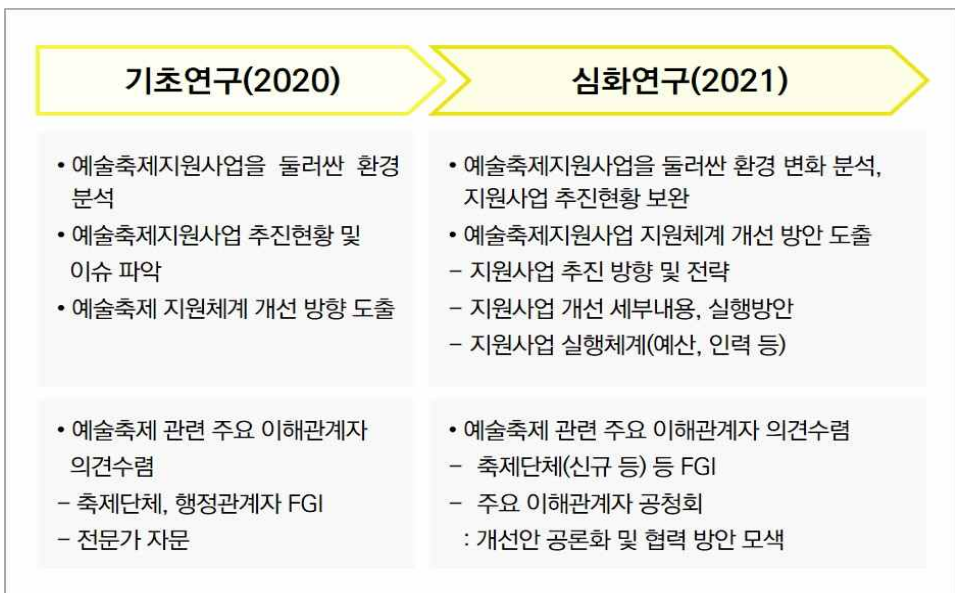
- 본 연구는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을 둘러싼 환경변화, 그간 추진되어온 예술축제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등 현 지원체계 진단을 기반으로 향후 예술축제지원사업의 개선방향을 그리는 기초연구임.
- 기초연구 과정 안에서 정책과 지역 현장에서 필요로 했던 ‘예술축제’의 범주를 비롯하여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사업의 정체성 및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향후 지역이관이라는 정책변화 및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원체계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한 큰 방향성을 도출하였음.
- 특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분권 정책기조에 따라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이 추진하던 중앙 사업이 각 지자체로 이관되기 시작했지만 사전 현장공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슈를 공유하는 차원의 장을 마련하였음.
- 더불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명과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살펴봄. 이로써 예술축제지원사업의 개념 및 위상 정립 필요성의 아젠다를 도출하였고, 예술축제의 자생력 강화 및 성장, 브랜딩 형성 등을 위해 예술축제 현장과 운영단체에게 필요한 직·간접 지원은 무엇인지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 방향성을 도출하였음.
- 또한 예술축제의 질적 제고, 예술생태계의 선순환구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평가체계, 예술축제지원사업 거버넌스 영역의 개선 방향성을 도출하였음.

## 제2절 후속연구 제안

### 1. 예술축제지원사업의 구체적 체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실행

- 본 기초연구가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사업의 추진현황 및 이슈를 파악하고, 지원체계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차년도에는 개선된 지원체제로 지원사업을 실행(2022년~)하는데 추진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전략 및 실행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세부적으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책, 사회, 문화, 기술 등의 환경변화와 지원사업의 현황 및 이슈를 당해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주요하게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사업의 정체성, 지향가치, 목표 설정
  - 예술축제의 성장 및 자생, 혁신 및 실험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 유형·방식 등 개선안 제안
  - 단체역량 강화, 홍보 등 간접지원 프로그램 개선안 제안
  - 축제 심의 및 평가체계 개선안 제안
  - 지역이관 등 정책 이슈에 따른 타 기관 관련 사업 통합 운영안 검토
  - 예술축제지원사업 개선 체계 도입을 위한 로드맵 제안
  - 개선안 도입 필요 예산·인력·일정 등 실행체계 제안

[그림 7] 예술축제지원사업 체계 개선 연구 단계



- 특히 지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 과정 안에서 예술축제 관련 다양한 정책·현장 이해관계자들이 예술축제, 예술축제지원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긴밀히 논의할 수 있는 공론화장을 설계하도록 함.
- 다시 말해 예술축제지원사업 추진의 내외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핵심이 되어 변화하는 정책 및 지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 지원 아젠다를 공유하고 밀도 높게 논의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순환고리를 마련하도록 함.

## 2. 예술축제지원사업 평가체계 개선 연구 실행

- 앞서 제시한 심화연구를 통해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사업의 정체성, 지향가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이와 연동한 평가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의견수렴에서도 검토한 것처럼 현재 평가체계는 대체로 정량성과 중심이어서 예술축제의 성장·자생, 혁신·실험을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예술생태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단체별 지원사업 연간계획, 목표 등과 연동하여 정성평가 항목들이 구체화된 평가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세부적으로는 평가 지표, 평가 시스템, 평가 수행체계, 평가 환류체계가 종합적으로 개선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높은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평가 지표: 예술축제의 지향가치, 목표달성을 위한 공통지표 개발  
예술축제의 성장·자생, 혁신·실험 강화를 위한 특성화지표 개발
  - 평가 시스템: 평가 자료 및 결과 DB 구축 및 관리 체계화
  - 평가 수행체계: 전문 평가위원, 시민 모니터링단 등 구성 및 운영체계 개선
  - 평가 환류체계: 평가 결과별 지원·관리 방안 마련



---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해인·김연진(2018). <2020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8a). <새 예술정책(2018~2022),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
- 문화체육관광부(2018b).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 문화체육관광부(2018c). <문화비전 2030>.
- 문화체육관광부(2020a). <코로나19 극복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 위해 하반기 지원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0b). <문체부, 내년도 예산안 6조 8,273억원 편성>.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0c).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0~2024)>.
- 양효석(2009), 지원정책 변화의 중심에 선 문화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웹진
- 박신의(2020), 일상적 위기의 시대 예술의 가치와 회복력. <제1회 코로나19 예술포럼 자료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새문화정책준비단·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
- 서울시(2016a),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 서울시(2020a), <제2차 서울특별시 문화진흥시행계획(2020~2024)>.
- 서울시(2020b), <2025 서울예술인플랜 토론회 자료집>.
- 서울문화재단(2019),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체계 개선 연구>.

## <웹사이트>

서울문화재단	<a href="http://www.sfac.or.kr">http://www.sfac.or.kr</a>
국가법령정보센터	<a href="https://www.law.go.kr">https://www.law.go.kr</a>
문화체육관광부	<a href="https://www.mcst.go.kr">https://www.mcst.go.kr</a>
예술경영지원센터	<a href="https://www.gokams.or.kr">https://www.gokams.or.kr</a>